東에서 온 '하나'의 진법, 온 곳으로 되돌려 주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⑧

(7)진법 하나(一)의 내력

반야다라는 보리달마를 데리고 청봉산(靑峰山) 기슭의 한 절(寺)로 왔다. '청봉'이란 산 이름은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를 온통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이 절은 독특하게도 본당이 암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비록 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돌의 생김새에 맞추어 본당을 지은 것이 어떤 기품을 느끼게 했다. 본당 앞에는 각이 지고 붉은 한 덩이 암반이 있고 커다란 마치 용트림하듯 한 그루 노송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암반 아래는 깊은 샘물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한 줄기 시냇물이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본당 안 한가운데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연 암석 위에 조각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머리 뒤로는 광배가 새겨져 있고 두 발은 상스러운 구름을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바위에 조각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은 마치 살아 계신 듯 인자함과 자비를 한껏 풍기고 있었다. 부처님을 보는 순간 보리달마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튀어나왔다.

"오늘 여기 온 것은 모두 인연이로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의 탄성에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참 뒤 목욕 재계할 준비를 서두르라고 일렀다.

보리달마는 본당 옆의 정사(精舍)로 들어갔다. 그곳엔 향나무로 만든 통 가득 목욕물이 준비돼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씻었다. 목욕을 마친 다음 몸의 물기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닦아냈다. 환골탈태라도 한 듯 상쾌한 느낌이 온 몸을 휘감았다.

온 것은 모두 인연 소산

보리달마는 회색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올린 다음 본당으로 갔다. 반야다라 조사의 삭발을 받기 위해 새삼스레 마음의 준비를 했다.

조사는 본당의 감실(龕室) 앞에 놓인 방석 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 합장하고 있었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본당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보리달마는 천천히 걸어가서 감실 위에 놓인 나무망치를 들어올려 세 번 연달아 경을 두드렸다. 이어 반야다라 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조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탁 드리옵니다!"

조사는 그제야 눈을 떴다. 천천히 일어나 손칼을 집어 들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리한 칼이었다. 보리달마 앞에 선 조사는 더부룩하고 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엔 격동이 일어나 억제할 수 없었다. 이 얼마나 오랜 바람이었던가!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승화가 아닌가! 이처럼 경건한 귀의를 이룰 수 있다니…. 한없는 감회가 꼬리를 이었다.

달마의 머리를 쓰다듬던 조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계(戒)를 송(誦)하면서 칼을 놀렸다.

"일체 세속의 생각을 끊어라!"

머리를 밀면서 읊는 조사의 소리에 달마가 복창했다.

"일체 세속의 생각을 끊겠습니다!"

반야다라 조사는 두 번째로 머리를 밀면서 외쳤다.

"일체의 선과(善果)를 닦아 이루어라!"

보리달마도 따라서 말했다.

"일체의 선과를 닦아 이루겠습니다!"

조사는 세 번째로 머리를 밀면서 외쳤다.

"일체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

달마도 같은 어조로 말했다.

"일체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습니다!"

반야다라가 손칼을 들이밀 때마다 보리달마의 머리카락은 한 묶음씩 툭 툭 떨어져 나갔다. 순식간에 머리에 계가 갖추어졌다.

반야다라는 달마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은채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윽고 눈을 뜬 조사는 눈동자의 촛점을 고정시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 갔다.

"네가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는 진법을 원래의 곳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너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남쪽은 너와 별로 인연이 없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비록 불교를 숭상하고는 있지만 불교의 참이치는 잘 모른다. 설령 네가 교화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봉착할 것이다. 그곳에선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안되느니라. 내가 게송 하나를 너에게 들려주겠노라."

소림사 9년면벽 암시

보리달마는 조사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공손하게 말했다.

"원컨대 조사님의 게송을 듣고자 합니다."

"길을 가고 물을 건너 다시 양을 만나고
홀로 외로이 강을 건너네
행빈 아래에 가련한 한 쌍 코끼리의 만남
두 그루 계수나무 있는 곳 오래도록 창창하리라"
(路行跨水復逢羊, / 獨自孤棲暗渡江.
日下可憐雙象馬 / 二株嫩桂久昌昌)

이 게송은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갔을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다. 맨마지막 구절의 '두 그루 계수나무'가 있는 곳은 소림(少林)사를 말하고 '오래'를 나타내는 '구(久)'자는 아홉을 뜻하는 구(九)와 상통한다. 따라서 소림사에서 구년면벽으로 창성하게 될 것을 노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송의 첫 구절의 '양(羊)'은 양(梁)나라를 상징한 것이고, 다음 구절의 '외로이 강을 건너가는' 대목은 양 나라 무제(武帝)와 헤어져서 양자강을 건너가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코끼리와 말은 각각 양 나라와 위(魏) 나라의 임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송을 들은 보리달마는 반야다라에게 물었다.

"자꾸 여쭙게 됨을 용서하십시오. 다음엔 무슨 일이 있겠는지요?"

반야다라가 대답했다.

"내가 죽은 뒤로 105년이 지나면 작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난리를 말씀하시는지요?"

"나의 게송을 듣거라!"

반야다라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읊조렸다.

"마음 속은 길하건만 머리 밖은 흉하고
시냇물 아래 승방은 이름에 걸맞지 않네
독룡을 만나 무자를 낳고
홀연히 생쥐 만나니 오래도록 적막하리"
(心中雖吉外頭凶 / 川下僧房名不中
爲遇毒龍生武子 / 忽逢小鼠寂無窮)

보리달마는 몸을 굽혀서 읍을 하고 또 물었다.

"다시 그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반야다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이후에 너는 총림(叢林)에서 한 사람을 만나 도과(道果)를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게송 하나가 더 있느니라!"

그는 정법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절감했다. 짚신을 신고 운수행각(雲水行脚)하며 보리를 증험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불문의 계율과 선법을 널리 펼침으로써 세간의 도탄에 빠진 생령들의 죄악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가련한 중생들의 심령(心靈)을 밝혀주리라고 다짐했다.

불경에 파묻혀서 그리고 종소리와 경소리를 들으며 사는 완벽한 승려의 생활이 시작됐다. 이로부터 보리달마는 조사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었다. 어언 40년의 세

◇범주스님의 달마도(종이에 수묵, 1992년作, 범주스님 소장).

"그저 가르쳐 주시기만 바랄 뿐이옵니다!"

반야다라는 다시 낭송을 시작했다.

"동쪽 땅 비록 넓으나 별다른 길 없구나
자손의 힘 빌려 걸어 나아가야 할지니
금계가 물어온 조 한 알로
사방의 나한과 승려를 공양하네"
(震旦雖闊無別路 / 要假兒孫脚下行
金鷄解御一粒粟 / 供養四方羅漢僧)

중생의 마음길 밝히리

게송을 끝마치자 반야다라는 불자를 한 번 털고는 본당 밖으로 훌쩍 나갔다.

보리달마는 조사의 현묘한 말씀과 이치에 새삼 감동했다. 자기도 모르게 찬탄의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는 반야다라가 불교의 융성과 침체를 예견하고 읊은 세 가지 게송의 속뜻을 깊이 되새겼다.

말기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것과 같다. 인생은 비록 잠시 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니 함없이 무궁한 것이니라."

보리달마는 조사가 열반에 증험하시려는 것을 알았다. 장하고 엎드려 말했다

"제자는 삼가 조사님의 가르 나이다."

"그래, 그래."

반야다라는 얼굴 가득히 웃 리고 게송을 읊기 시작했다.

"마음 속에 여러 씨앗이 생 이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생 정과를 이루면 보리도 원만 꽃피는 아름다운 세계 열리
(心地生諸種 / 因事復生理
果滿菩提圓 / 華開世界起)

길(道)을 닮은 정법 계승
인생은 비록 찰나지만
길은 다함없이 계속될지니…

불법을 구하려면 우선적으로 세속에 물든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아가 잡념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을 닦아 정과(正果)를 이룰 수 있는 법이다.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에게 삭발을 받고 가사를 걸치게 됨으로써 형식적이긴 하지만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제 보리달마는 정식으로 불조 27대의 법통을 이어받은 28대조가 된 것이다.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지향해야 할 길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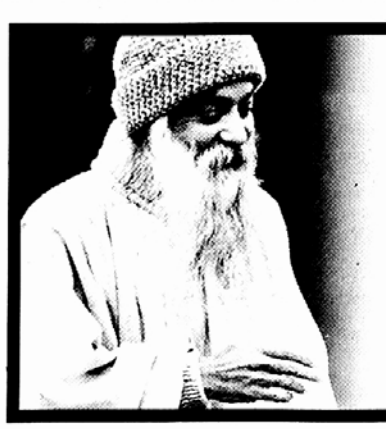
"조사님! 제가 이미 하나(一)의 진법을 받았거늘 마땅히 어디에 가서 불사를 행해야 좋을런지요?"

반야다라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보리달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一)의 진법은 본시 동쪽 땅에서 전래한 것이니라. 그 법을 마땅히 동쪽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이곳 남천(南天)에서 교화를 행하도록 하라. 그러다가 내가 죽은 뒤 67년이 지난 다음 동쪽 땅으로 가서 진법을 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너의 본분임을 잊지 말거라!"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의 인과(因果)를 꿰뚫어 내리는 교시(敎示)에 새삼 감복했다.

"조사님. 듣자옵건데 동쪽 땅에도 고승대덕들이 많다고 하던데…. 제가 그곳으로 가야만 할 어떤 인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때 우주가 열린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변화만이 영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